Vol.233
2021 09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7)

박해와 선교현장
인도네시아 (Indonesia)

심화현장
인도의 COVID19 현장스토리와 기도요청

KAKAO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실패가 없는 선교사역

김영우목사 (혜림교회 담임, 한국오픈도어 이사)

안식년을 호주에서 보낼 때 글을 통해 만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889년 10월 2일, 호주 출신 목사 한 명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호주를 출발한지 40여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 1856-1890) 목사입니다. 호주 명문인 멜번 대학교와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의 뉴칼리지(New College)에서 공부한 수재였던 그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의 초대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선교의 필수과정인 언어공부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등 서양선교사들이 미리 와있던 서울로 가기 위해 다시 출항하여 1899년 10월 4일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후 데이비스 목사는 서울에서 한국어 공부에 최선을 다해 몇 개월 후에는 간단한 일상의 대화는 몰론 간단한 설교까지 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지 5개월이 지난 1990년 3월 14일, 그는 자신을 도와줄 한국인 몇 명 동역자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 자신이 선교하기를 원했던 부산으로 서둘러 출발합니다. 그의 가슴이 선교의 열정으로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산으로 가는 동안 마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간 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만나는 한국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의 수원, 충청도의 공주를 지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상도에 도착할 때쯤 그의 몸은 천연두와 폐렴등으로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가 부산에 도착한 날이 1890년 4월4일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2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산에 와있던 선교사들과 의사들이 그를 돌보았지만 그의 몸은 회복할 상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부산 도착 다음날인 1890년 4월 5일, 호주를 떠나 한국에 도착한지 6개월 만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선교의 꽃도 피워보기 전에 죽은 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에 당황했으며 또 비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호주의 한국선교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데이비스목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난 1890년 5월 6일, 그의 고향인 호주 멜버른 시내 스콧 교회(Scots church)에서 거행된 데이비스의 선교사 추모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배에 참석한 호주인들의 가슴에 한국선교에 대한 소명과 헌신을 불같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스콧처치를 넘어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Who is next? 다음에는 누가 갈 것인가? 가 호주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울리는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많은 호주 목사, 의사, 각종 선교사들이 한국선교에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호주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은 데이비스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선교사는 여성이 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호주 장로교 여전도회 선교연합회(PWMU, Presbyterian Women's Missionary Union)를 조직합니다. 실제로 이 단체는 40여명의 여선교사들을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그 외 존 멕카이 목사(Rev. J. H. Mackay) 부부, 앤드류 아담슨 목사(Rev. Andrew Adamson) 부부, 커렐 의사(Dr. H. Currell) 등 120여명이 넘는 호주 선교사가 데이비스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밀려들어옵니다. 한 알의 밀알이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능했던 청년 선교사 데이비스의 죽음이 호주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필요성, 특히 한국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데이비스의 선교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데이비스의 죽음 이후에 한국에 도착한 호주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의 인프라가 그래도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던 서울이 아니라 부산, 경남지역에서 선교사역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자신들이 데이비스의 정신을 잇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비스의 후예들은 부산 경남지역에 그들의 정성을 쏟아 선교하며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웁니다. 지금도 부산, 경남에는 호주선교회가 세운 병원, 학교, 교회들이 주의 복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과 공산권 선교에 힘을 쏟는 오픈도어 선교회의 사역은 때로 열매도 없어 보이고 성과도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역에 헛된 일이란 없습니다. 당시에는 누가 한국 도착 6개월 만에 죽은 헨리 데이비스의 선교사역을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사역은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픈도어의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현장 사역자들의 헌신과 그 사역의 가치를 알고 후원하는 후원 사역자들의 헌신은 분명 귀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빛도 이름도 없이 현장과 후원의 자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분명 이 시대의 아름다운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때로 사역의 열매가 금방 보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의 장벽이 거칠고 높아보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선교사역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사역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7)
08 **박해와 선교현장** - 인도네시아
12 **사역과 스토리** - 사진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사역
16 **심화현장** - 인도, COVID상황과 기도요청
18 **현장스토리** - 인도 '바아니' 자매 이야기
20 **WWL2021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22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2021년 09월호 | 통권 233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7)

- 구류장 이동 전 분주소에서 -

마리아 자매

보고 있어도 그리운 어머니와 남편, 작은아들을 뒤로한 채 나는 또다시 이동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내 소유로 (머리에) 이고 있던 짐가방은 남편에게 주었다. 그동안의 마음의 짐도 왠지 남편과 맞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쉬운 마음만 남기고 친정집에서 나와 서비차를 타고 보안서 감찰과로 이송되었다.

감찰과 대기실의 죄인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왔고 나만 중국에서 온 사람이었다. 대기실에서도 장염으로 인한 고열로 끙끙 앓았다. 이런 나의 모습이 보기 딱했던지, 어떤 여자 죄인이 나에게로 다가와 안마를 해주기 시작했다. 살도 근육도 없이 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몸뚱어리에 잡히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나의 몸에서 중요한 혈을 짚어내며 안마를 하는 듯했다. 알고 보니 예전에 군 복무를 하면서 간호사로 일했었단다. 안마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밤은 그나마 고통이 덜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다.

지역 분주소 담당 보안원이 나를 데리러 왔다. 흘러내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보안원이 끌고 온 자전거 뒤에 올라탔다. 여름,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한두 시간 가량 자전거로 달려가 분주소에 도착했다. 분주소 소장은 나를 보자마자 온갖 욕을 해댔다. 그에게 나는 조국을 배반하고 중국에 도망쳤다가 잡혀 들어온 ‘미친 간나’였다. 그가 악쓰는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내 말을 잘 못 알아먹고 조선말도 까먹은 년”이라며 더 노발대발했다.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한 반역죄를 짓고도 이 푸른 대지를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위대한 수령의 동상 앞에 떳떳이 다닐 수가 있나.” 온갖 어마어마한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나는 무서워하며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기만 하였다.

소장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서는 나를 또 다른 대기실로 이동시켰다. 그곳에서는 다른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양반다리를 하고 고개를 숙이

〈북한의 보안원 (국민일보 자료사진)〉

〈2009년 발행된 북한의 ‘150일 전투’ 선전 포스터〉

고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다시금 구류장에서 했던 것처럼 부동자세를 취했다. 취침 시간이 다 되어 불을 껐지마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 그립던 고향에 왔으나 나에게 차려진 것은 서늘하고도 무서운 철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기실에서 빠져나와 내가 감금될 방에 처넣어졌다. 새로운 감방에서도 온종일 부동자세를 취하니 날이 어느덧 기울었다. 그곳은 초저녁에도 어두컴컴하였다. 전기가 없는 열악한 이곳을 밝게 비추어줄 촛불은 안에는 없었고 바깥에서 누군가 가져다 주어야만 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초를 구하지 못했고, 해가 진 감방은 영락없는 어둠뿐이었다. 이튿날 보안원이 우리 감방에 찾아왔을 때 어둑어둑한 방안을 보고는 “XXX 마누라가 누구냐! 이 방에는 초도 없나!”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새로 온 죄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 보안원이 손수 자기 방에서부터 초를 가져와서 내 코앞에 불을 갖다 대었다. 촛불로 비추어본 나의 사지는 영락없는 성냥개비처럼 빼빼 말라 있었다. 새삼 나의 손발이 참 불쌍했다. 매일 달고 살던 몸뚱어리인데도 이렇게 돌아볼 여지가 없었다. 이름이 불린 나는 젖 먹던 힘을 다해 큰 소리로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다. 며칠 전에 보았던 그리운 남편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내가 있는 곳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서든 도시락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차마 손을 맞붙잡지도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남편을 다시 떠나보내고는 차가운 감방으로 다시 들어왔다.

어제의 정겹던 면회도 무색하게 나의 장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다. 약은 커녕 제대로 된 보식도 기대할 수 없어 매일같이 피똥을 쌌다. 이 와중에 노동에도 투입돼서 고통은 날로 더해갔으나, 나의 온 감각은 온갖 욕과 함께 무뎌져만 가고, 웬만한 통증은 이제는 느낄 새도 없이 일만 했다. 오늘의 노동은 분주소 우물의 지붕을 짓는 일이었다. “너네 다 나와!” 이 보안원의 한 마디에 남녀 구분 없이 죄인들이 다 동원되어 노동을 개시하였다. 이곳에서 나는 중국에서 잡혀와 예심을 위해 구류 중이지마는 다른 죄수들은 ‘150일 전투’ 등을 포함한 각종 국가 노동 동원에 불참하여 끌려온 근무지 이탈자들, 혹은 가벼운 사기범이었다. 나는 장염에 시달려 골골댔으나 이곳에서만큼은 나라를 배반

한 대역 죄인이었으므로 그런 사정을 호소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일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영양 결핍과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다 없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든 이 상황이었지만 나는 젊은 시절 돌격대에서의 노동했던 가닥이 있어서인지 열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능숙한 솜씨로 모르타르를 이겼다. 곧잘 일하는 나의 모습을 본 분주소 소장은 본인의 사무실 창문 앞에서 나를 보며 일 요령이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모두 개인 부담이었다. 덮고 잘 담요, 생필품을 비롯하여 하루 세끼 먹을 음식까지 소에서 제공해주는 것 하나 없이 모두 바깥에서 가족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했고, 그마저도 형편이 안되는 죄수들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려야만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해결책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나는 감사하게도 남편이 그 무더운 여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와서는 하루 세끼를 해결할 도시락을 챙겨주었고, 나는 그 도시락에 아침, 점심, 저녁의 모든 영양분을 의지하며 살았다. 보관 설비는 커녕 기본적인 가구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이 비좁은 감방 한구석에 그 귀한 도시락을 얌전히 놓아두었다가 아침 노동이 끝나면 손을 씻고 들어와 먹고, 오후 노동이 끝나고 들어와 나머지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마지막 도시락을 까먹었다. 밥을 먹는데 옆에서 먹을 것 없이 굶는 죄수들이 보였다. 나에게도 적은 양이었지만 딱한 마음에 한 줌도 안 되는 밥을 함께 나눠 먹었다. 그때 도시락을 나눠먹은 죄수들 중 한 명은 풀려난 뒤에도 종종 면회를 와서 자기가 손수 싼 도시락을 가져다주며 '그때 주었던 도시락 이렇게 갚네.' 하였다.

다른 때와 같이 골골대며 도시락을 나눠 먹던 어느 날, 담당 형사가 나를 불러내었다. 심문이 시작된 것이다. 매일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직원에게 불려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쓰고, 쓰고, 또 썼다. 날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게 해서 거짓말을 판별하고 모든 사항이 숨김없이 드러나도록 하는 전략이다. 처음 국경 보위부 심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다시 진술해야 하는데 기억력이 제한되다 보니 틀린 부분이 나오고 진술문을 계속 다시 쓰게 되었다. 한 일곱 번쯤 썼을까?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도 쥐가 날 지경이었다. 초심 동안에는 그렇게 진술문을 쓰다가 담당 형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라고 하면 방으로 돌아가 청소를 했다. 심문하는 담당 형사는 노골적으로 "너는 중국에서 가져온 게 뭐가 있니." 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진짜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바칠 돈이 없었다. 조국을 배반하고 중국으로 도망간 년이 돈조차 갖다 바치지 않으니 나는 영락없이 미운 털만 박힐 뿐이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면회를 오는데 팔다리가 모두 까져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야밤에 강도는 만났단다. 분주소와 우리 집 사이에 있는 무인지경에서 군인들이 종종 밤에 나와 강도질을 하곤 하는데 전날 밤에는 면회를 왔다가 집에 가면서 운 나쁘게 그들에게 당한 것이다. 군인들은 길 사이에 안 보이게 끈을 설치해서 덫을 만들었고, 남편이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그 덫에 걸려 넘어졌다. 서너 명의 군인들이 깜깜한 밤에 남편에게 다가오는데, 남편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두 손에 두 돌을 집어 들고는 "덤비겠으면 덤벼라. 죽을 각오 돼 있다." 하며 발악을 했다고 한다. 아마 감옥에 있는 내가 생각나서 더 담대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강경한 남편의 모습을 본 군인들은 순간 놀랐는지 자전거도 안 빼앗고 그냥 보내주었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을 나를 위해 매일같이 감수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날씨가 유난히 더웠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남편의 면회가 늦어졌다. 알고 보니 마침 그날 남편이 엄마 얼굴 보여주겠다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심보가 고약한 간부가 남편과 딸내미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땡볕에 세워놨던 것이다. 중천에 있던 해가 서서히 떨어지는 오후 즈음 면회가 허락되어 나가보니 남편과 딸아이가 땀에 절어 앉아있었다. 딸과의 재회는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어미 없이 잘 자라주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눈물이 왈칵 나왔다. 눈 코 입을 찬찬히 살펴보니 왠지 엄마 없이 자란 아이의 서글픔이 서려 있는 듯하여 내 마음이 더 미어졌다. 남편이 가져온 도시락을 같이 먹는 그 짧은 시간이 참 달고 행복했다.

친정엄마도 면회를 오셨었다. 엄마가 사시던 집은 분주소에서 적어도 40리는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남편은 자전거라도 타고 올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여름 뙤약볕을 그저 걸어오신 모양이었다. 아마 네다섯 시간은 걸어오셨을 것이다. 당시는 추수 직전 보릿고개였고, 어머니 당신도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굶어가며 양손에 오이 세 개를 들고 오셨다. 변변한 도시락도 싸 오지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온 오이 세 개를 나에게 내미시는 어머니의 그 앙상한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보안원 앞에서 금방 쓰러질 듯 서 있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초라하고 창피하게 느껴져서 괜히 어머니께 "뭐 하러 이런 걸 가져오냐"라며 큰소리를 쳤다. 그렇지만 막상 감방에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밉게 군 것이 후회되어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분주소에서는 일어나자마자 노동을 하고 간수가 부르면 조서를 쓰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보통 15일이면 끝나는 초심 과정이 계속 길어지고 있었다. 심문도 심문이지만 구류장에 자리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중이라고 했다. 들어온 것은 여름이었으나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나는 내심 초심 단계가 조금 더, 조금만 더 연장되길 바랐다. 심문 과정이 끝나고 구류장으로 이송되기 전에 어떻게든 수를 써서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나의 작은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몇 명의 죄수들은 따로 불려졌고, 나는 구류장으로 이동을 할 채비를 해야만 했다. (다음 호에 계속)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구 : 2억 72,223,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79.5%), 기독교(12.2%)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33,192,000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47위, WWL2020-50위
기독교박해 지수 : 63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의 억압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이지만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며, 공식적으로 6개 종교(이슬람, 카톨릭, 개신교, 힌두교, 불교, 유교)를 인정하고, 이 공식적인 종교들 사이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무슬림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할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경험한다. 박해의 강도는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다르다.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은 수마트라 섬 북서부의 아체(Aceh) 주이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 법이 지배하는 곳이다. 동부 인도네시아는 기독교가 강한 반면, 서부와 중부, 특히 가장 인구가 많은 자바 섬에서는 이슬람이 강하다.

문제는,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가 종교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과격파 이슬람 단체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나 지방당국 모두 치안의 불안이 두려워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단체가 "이슬람수호전선(FPI)"이다. 작년에 새로운 이슬람 정당들과 운동들도 나왔다.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이슬람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급진주의 이슬람 이념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크리스천을 향한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증가가 우려된다.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타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인도네시아 최대의 무슬림 조직(NU)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과격파 이슬람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급진주의가 나타나 충격을 준 대표적 사례이다.

* '신성모독' 선거 캠페인 : 자카르타에서 50여 년 만의 최초의 크리스천 주지사였던 "아혹 Ahok (Basuki Tjahaja Purnama)" 이 2017년 5월 재선 선거운동 중, "우리의 정적들이 '무슬림은 비무슬림의 지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꾸란의 구절을 인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약 20만 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시위를 하며 캠페인을 벌여 아혹 주지사를 선거에서 패배시키고, 신성모독죄로 수감.
* 2018년 3교회 폭탄 테러 : 2018년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 시에서 교회 3곳이, 시리아의 IS캠프에서 훈련받은 무슬림 일가족들(어린 소녀 포함)에 의해, 연쇄 자살폭탄테러를 당함. 크리스천 18명 사망, 부상자 다수 발생.
* 2019년 대학생 이슬람 의식화 실태 : 현지 NGO(Setara Institute)가 10개 국립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대학교 구조를 이용해 추종자들을 얻고 있음을 발표. 대학생들에게 급진적인 이슬람적 관점을 가지도록 의식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개종은 경멸을 당하고 많은 경우 가족들에게 심하게 반대를 받는다.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자녀를 빼앗기는 사례들도 있다. 개종을 하고 신분증의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어려움에 부딪힌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종한 이들이 새 신앙을 숨기고 조용히 사는 편을 택한다. 개종을 하고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인식된다. 특히 아체, 동자바, 반텐, 서자바, 서수마트라 같은 곳이 그렇다. 점점 다른 지역까지 이런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나누지만, 무슬림이나 힌두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에게는 위험하다. 이슬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동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독교 상징물 착용도 피하는 편이다.

• 가정 영역 : 어린이보호에 대한 2002년 법과 2007년 정부 조례에 의해 아이를 입양하는 부부는 입양아의 친부모와 같은 종교를 가져야한다. 친부모의 종교를 알 수 없으면 그 지역 인구 다수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 아체와 같이 이슬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학교에 기독교 종교교육 교사들이 없어 크리스천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이슬람 종교 수업시간에 참석해야 한다. 또는 기독교 수업을 위해 학교밖에 있는 교회로 보내지기도 한다. 이슬람 수업을 들은 크리스천들도 보통 시험에 통과하기는 하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압력을 피하기 위해 여유가 있는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낸다. 크리스천 아이들은 학교에서 신앙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 "카피르(불신자)"로 불리고, '신은 이슬람만 인정하며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많은 무슬림 부모들이 자녀들을 크리스천 친구와 놀지 못하게 한다.

• 지역공동체 영역 : 교육은 크리스천 차별이 일어나는 주된 영역이다. 아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좋은 국립대학에 입학허가를 받는 크리스천 학생 수는 매우 제한된다. 대부분 정부의 해외유학 장학금도 무슬림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크리스천은 최고점수를 받아도 1등을 안주는 사례들이 있다. 무슬림에게는 무료로 지급되는 교복을 받지 못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아체 지역에는 복장지침이 있다. 다른 지역에도 점점 더 이슬람 베일 착용이 흔해지고 있다. 2019년 11월 이슬람 최고학자 위원회인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는 무슬림들에게 타종교인들과 인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무슬림 단독 주거지(샤리아 주택단지)'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건설업자들이 무슬림만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짓는 것이 트렌드화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자카르타 내외부에 그러한 주택단지 81개가 문을 열었다. 수요가 늘어나 점점 더 많이 건설될 예정이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무슬림으로 돌아가도록 강한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비폭력적인 방식의 압박이 있다. 재정, 교육, 의료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슬람에 대해 배우라는 식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압박한다. 공직에서의 차별이 일상적이다. 승진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크리스천 학생들은 공무원이 되는데 필요한 학업성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아주 낮은 종교점수를 준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는 크리스천이 거의 없다.

2018년 테러를 당한 교회 중 한 교회 예배

2019년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군대의 3%-약 12,000명-이 이슬람 강경파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019년 다른 한 보고에 의하면, 근본주의 이슬람 이념이 공직 내에 퍼지고 있다.

• **국가 영역 :** 지난 3년간, 크리스천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매우 조심한다. 이슬람에 반대하는 말로 인식될 경우 신성모독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크리스천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은 없다. 2017년 11월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지역은 일부이다. 이러한 결정은, 반대에 부딪히고, 머지 않은 장래에 전국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지역 단위의 입법은 종교적 자유를 더 제한한다. 여러 지방들이 샤리아 법을 채택하므로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준다.

거의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지도자들에 반대하는 비방과 증오연설들이 나온다. 모스크와 기타 장소에서의 대화 가운데 나올 뿐 아니라 문자로 기록되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거나 포스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크리스천 박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든다.

• **교회 영역 :** 교회 등록과 건축은 2006년 개정된 법령에 의해, 1) 최소한 90명의 교인이 있어야 하고 2) 타종교를 가진 이웃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 지방행정장관과 타종교간 화합 포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 극도로 어려운 요건이다. 만일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허가를 받는다 해도 당국과 경찰의 보호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한 교회는 5년 전에 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당국의 반응이 없다. 다른 경우 과격파 무슬림들이 교회 건물 입구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법원이 교회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도 당국은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이 우선 허가를 내기조차 어렵다. 인도네시아 교회의 85%가, 특히 시골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아체 주정부는, 교회 건축에 앞서 타종교인 이웃 150명의 동의서명을 요구했다. 반텐 지방은 일부 도시들에 교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회 규제 법령들(2006년 발표)은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로 바뀔 수 있을 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많은 지역에서 교회는 전도활동에 감시를 받는다. 시골지역이 심하다 도시 지역에서는 과격단체들이 감시한다. 그들은 필요하면 교회예배를 위협한다. 그들은 반교회 시위 집회를 하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한다. 현재 팬데믹으로 외부모임이 불가하지만 그 전에도 모임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질까봐 모임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에는 종교개혁500주년 집회가 과격파 무슬림들의 항의로 취소되었다.

법적으로 개종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도시들의 많은 교회들은 무슬림 및 타종교에서 개종하는 크리스천들을 공개적으로 환영한다. 때로는 이들이 소셜미디어의 유명인이어서 많은 이목을 끌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과 시골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교회들은 강제개종 또는 '기독교화'를 시도했다는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개종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것을 삼가하고 주의하게 된다.

WWL2021 박해보고

(2019년10월 1일~2020년9월 30일 기간)
*10,100은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

신앙 때문에 살해된 크리스천 수	1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학교, 병원, 묘지 등) 공격 건 수	16
신앙 때문에 구금되거나 투옥된 크리스천수	4
신앙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크리스천수	1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재산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38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피신해야 한 크리스천 수	56

– 2020년 9월, 한 파푸아 목사(예레미야 자남바니)가 파푸아의 불안정한 지역, 인탄 자야, 봄바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됨. 최초의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살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함.

–2020년 8월, 최소한 50명의 원주민 카톨릭 크리스천들이 동부 누사 텡가라 지역에서 추방당함.

–2020년 4월, 서부 자바 씨카랑에서, 코로나19 기간에 가정예배가,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무슬림 사제와 주민 폭도들에 의해 중단됨. 그 외, 욕야카르타, 자카르타, 서부자바, 아체, 수마트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과격파 단체들에 선동을 당한 이웃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폐쇄.

–적어도 2명의 크리스천들이 신앙 관련해서 체포. 안전상의 이유로 세부사항 미공개.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 2020년 11월, 중부 술라웨시 시기(Sigi)에서 IS와 연계된 이슬람 테러단체 무자헤딘(MIT) 무장대원들이 주민들을 집밖으로 불러내고 4명의 크리스천 살해, 가정집들과 임시교회 건물에 방화

• 2021년 3월,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Makassar)의 가톨릭성당 밖에서, 예배 직후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테러범 외의 사망자는 없으나 14명의 크리스천 부상자 발생.

• 2021년 5월, 중부 술라웨시 나푸(Napu)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4명의 크리스천 피살

인도네시아 교회 역사

포루투갈 상인들이 신세계와 이국적인 향신료들을 찾아 1511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동부 말루쿠에 들어오면서 로마카톨릭을 함께 들여왔다. 그것이 인도네시아에 뿌려진 기독교의 첫번째 씨앗이다.

1993년에 나온 한 보고서(Frederick W H & Worden R L)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기독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포르투갈 예수회와 도미니코수도회가 말루쿠 섬들, 남부 술라웨시, 티모르에서 16세기에 활동했다. 그러나 1605년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물리치면서, 카톨릭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네덜란드 캘빈주의 개혁교회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세력으로 300년간 존재했다. 캘빈주의는 엄격하고 금욕적이며 비타협적이고 완전히 지적인 이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외국 종교일 뿐이었다. 기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19세기까지 거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자바, 말루카, 북부 술라웨시, 누사 텡가라(주로 로티와 티모르)에서 몇몇 소수 기독교 공동체만 살아남았다. 1799년 동인도회사가 해체된 후, 인도네시아 군도의 선교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채택한 네덜란드인들은 그 지역 내에서 선교활동들을 허가했다. 독일 루터교인들이 1861년 수마트라의 바탁에서 일을 시작하고 전도활동을 시작했다.

20세기는, 카톨릭과 루터교 교회들의 지속적인 성장뿐 아니라, 많은 새로운 개신교 선교사 그룹들의 유입을 목도했다. 1965년 공산주의 쿠데타 시도 후에, 모든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무신론자라는 딱지가 붙여졌고, 공산주의 동조자라는 비난을 받기 쉬워졌다. 그때, 여러 다양한 기독교 교회들의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슬람 정당들의 정치적 야망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 증가했다.

1990년대에,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개신교단 소속이었다. 특히 북부 수마트라, 이리얀자야, 말루쿠, 중부 칼리만탄, 중부 술라웨시, 북부 술라웨시에 큰 교회들이 나왔다. 카톨릭 교회는 1980년대에 급속도로 교인이 감소했다. 무슬림이 지배하는 인도네시아 종교국은 선교활동에 대한 규제들을 점점 늘렸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3,000명(0.0%)
카톨릭	8,100,000명(24.4%)
개신교 기성교단	20,204,000명(60.9%)
독립교단	6,384,000명(19.2%)
무소속	400,000명(1.2%)
이중소속	-1,899,000명(-5.7%)
합계	33,192,000명(100%)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보수주의로 급선회하지 않고 포용적 정책이 유지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사진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사역

COVID19 긴급구호

인도네시아의 팬데믹 상황이 현재 인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7월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픈도어는 활동제한 조치들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당한 인도네시아 성도들 수천명에게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음식을 팔거나 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 주차관리원 등의 일을 하던 가난한 무슬림 출신 성도들에게도 구호품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오픈도어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친절에 갚을 것이 없네요." -Warto Mukio

"이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생활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저는 축복받은 거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 Yah

시기(Sigi) 테러 피해자 12가정에 새 주택 후원

시기(Sigi) 지역 테러(2020년 11월)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어진 새 주택들의 테이프 커팅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제 일상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리더십 세미나 / 주일학교 교사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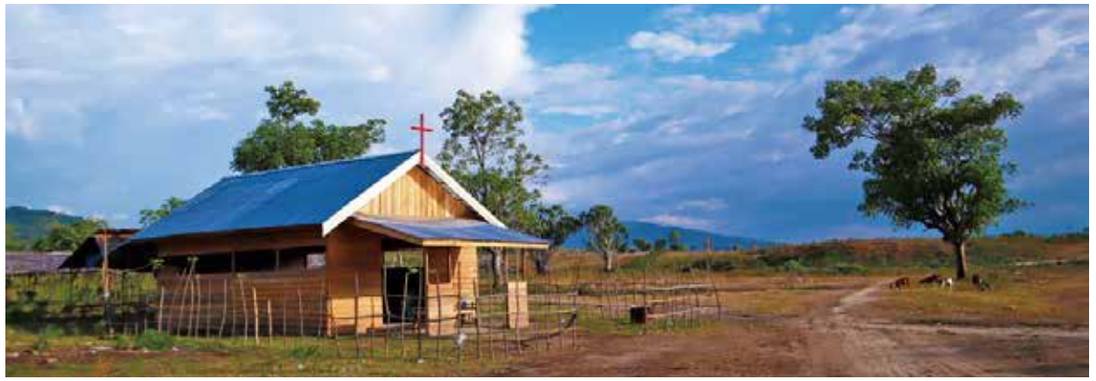
리더십 세미나, SSTS, 주일학교 교사훈련이 중부 술라웨시에서 열렸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 불확실한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 지식과 훈련을 받는 것이 현지 크리스천 약 220 가정에게 희망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성도들은 사역팀의 이동을 위해 통나무로 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MBB여성 직업훈련

오픈도어의 여성훈련센터에서 양재기술을 배운 나오미(가명) 자매는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한 가게로부터 대량주문을 받아 수입도 생겨났습니다. 나오미는 오픈도어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지진 피해 교회 보수 / 난민 교회 건축

팔루(Palu) 지진(2019년 9월) 피해 교회들(Bait Shean교회를 비롯한 6개 교회)의 교회 보수를 지원하고, 피해 난민들을 위해 시기 지역의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 폭탄테러 피해 어린이 수술 치료

사마린다(Samarinda) 교회 폭탄테러(2016년11월)로 전신화상을 입은 두 어린이, 아발로(당시 5세)와 트리니티(당시 4세)가 여러 차례의 수술을 통과하고 치료받는 과정을 지원하고 함께 했습니다. 두 어린이는 어엿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나푸(NAPU) 테러 희생자 가족 방문

2021년 5월11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중부, 포소(Poso)리젠시의 나푸(NAPU) 마을에서 크리스천 4명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목이 베여 피살됐습니다. 술라웨시 중부는 작년 11월, 시기(Sigi) 테러가 일어난 곳이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오픈도어는 기도후원자님들께 기도를 요청하고(한국오픈도어 네이버 포스트), 현지 파트너 아리 형제와 같이 희생자 가족을 방문하여 슬픔과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희생자 2명이 출석하던 현지 교회의 담임 이스와디 목사님은 아리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방문하고 우리를 지지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요, 여기 우리가 느끼는 부담을 오픈도어가 와서 우리와 나란히 함께 해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희생자 중 2명이 출석하던 토라쟈 마마사(Toraja Mamasa) 교회

인도네시아 동부, 태풍피해지역에 성경 전달

올해 4월 초, 태풍 ‘세로자’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을 강타하여 177명의 사망자와 함께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산과 집, 농작물, 모든 소유와 성경을 잃어버린 이재민 성도들에게 인도네시아 성서공회를 통해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인도, COVID-19 상황과 기도요청

수백명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인도의 코비드(COVID-19) 상황은 어떤가요?

매일 검출되는 공식 감염 건수가 현재 약 2만 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하루 40만 건 이상이던 이전 수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률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가난하여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악화되면서 사람들은 의약품, 산소탱크, 병원을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크리스천들은 첫째로 가난하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로 일부 크리스천들은 지역 신분증이 없어서(일하기 위해 이주했기 때문에)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두 달 동안, 여러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활동적인 파트너들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저희는 확진 된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일부는 위독합니다. 사망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가족들은 충격뿐만 아니라 이제 생계가 막막합니다.

병원은 아직도 의료 시설이 부족한가요?

네, 여전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병원들은 설비가 미비하고 의료 시설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든 병원들은 가득 찼고 병원내의 물량은 부족했습니다. 직원들도 감염되었기 때문에 서비스들이 정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치료 부족이 만연했습니다. 사립 병원의 비용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들 역시 가득 찼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품은 부족하고 암시장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병원에 약품, 산소, 병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환자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약품과 다른 시설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한 백신을 두 번 모두 받은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상황이 다시 악화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지역을 봉쇄하고 있나요?

2021년 4월 이후, 코비드 규제는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이 악화되었고, 특히 차별과 사회적 배척으로 인해 이미 생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규제들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상황은 서서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개선된 주들에서는 일부 규제들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백신 접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백신을 두 번 모두 받은 사람들의 수는 매우 낮습니다. 2021년 6월 13일까지도, 인구의 3.5%만 완전접종을 받았습니다. (8월13일 8%대) 두 번의 백신 접종 간격은 12-16주로 늘어나 완전한 백신 접종을 더욱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백신은 제한되어 있고 접종센터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긴 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인도의 크리스천들의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때문에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종종 지역 신분증이 없는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량과 의료 지원 같은 정부 혜택을 받는데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코비드 상황은 몇몇 주들에서 엄격한 봉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다른 모든 서비스들도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일일 임금 노동에 의존하며 식품 노점 등을 운영하는 가난한 크리스천들의 생계를 위한 선택들을 줄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코비드에 감염되었는데, 목숨을 잃은 가족은 대개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감염되었고 그 중 일부는 사망했기 때문에 지난 해에 비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목회자들의 소득원은 교회가 폐쇄됨에 따라 이미 큰 영향을 받았으며 십일조와 봉헌물들로 얻는 수입도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비드와 다른 질병들로 고통받는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기도와 지원 요청을 받는데 그분들은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십니다. 그분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기독교 기관에 고용된 일부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강제 개종에 대한 거짓 주장에 근거하여 폐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들에 있는 파트너들에 따르면, 몇몇 기독 병원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그들이 목격하기에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COVID-19 상황의 인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 인도의 코비드19상황이 나아지고, 바이러스가 더 위험한 형태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해주세요.
- 국가의 보건 인프라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특히 기독교 병원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에서 보는 죽음과 절망에 낙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 암시장 의약품 판매 등의 부패가 멈추기를,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 교회가 문을 닫고 헌금이 없어 생계에 영향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감염되었고 쓰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아직도 코비드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염된 크리스천들로부터 매일 기도 요청이 옵니다.
- 생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박해 받는 크리스천들을 돕는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위해, 그들이 사람들을 개종시켰다는 거짓 비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코비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특히 구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인도 '바아니' 자매 이야기

"하나님은 저의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고통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태양이 밝고 뜨겁게 빛나며 여름 시즌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로는 인적이 드물어 보이고 시멘트 도로에서는 열기가 눈에 띄게 솟아 오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저희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바아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마른 체격에 40대 초반으로 평소 입던 일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하고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따스한 미소로 저희를 환영합니다. 저희는 그녀의 믿음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기쁘고, 여러분의 친절한 도움을 통해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치유자를 찾아

바아니의 어머니 뱃속에 종양이 의심되었을 때, 가족들은 치유를 위해 여러 병원과 다양한 우상 숭배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치유는 없었습니다.

바아니는 말합니다. "이웃의 권유로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어머니가 치유되는 것 뿐이었고, 그래서 부모님과 저는 딸들과 함께 오랜 동안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점차 어머니의 종양이 치료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치유되는 것을 보며, 평안을 경험하면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고통

바아니의 새로운 믿음은 남편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교회에 가는 걸 싫어했고, 처음에 저와 딸들은 몰래 교회에 다니거나, 아니면 남편이 없을 때 가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왔고,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바아니는 말합니다. 바아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서 몇 차례 심한 구타를 당했고,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딸들도 교회에 가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매일 술에 취한 남편이 가족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남편은 바아니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아니는 남편과 떨어져 딸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과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남편은 친정 집 앞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아니는 모든 구타와 고통과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바아니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 모두를 부양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고, 교육도 받지 않은 바아니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아니는 "펜데믹으로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위해 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역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재정적으로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 바아니는 말합니다. "하지만 펜데믹은 그 교회의 자원도 제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축복의 모습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놀랍게도,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저를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바아니와 그녀의 어려움들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나서서 바아니가 집에다 옷감 가게를 차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아니는 여성용 사리(겉옷)와 옷자재들을 사서 동네 주민들에게 파는 것으로 괜찮은 생활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옷감 사업 시작 몇 달 후, 봉쇄가 해제되면서, 바아니는 근처 공장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의 비참한 사정을 보고 저희 집에 옷감 가게를 차리는 데 도움을 주신 오픈도어 파트너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고 근처 공장에서까지 일자리 제의를 받았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도움은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옷감을 팔 수 있어요."

바아니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저는 돈을 벌어 부모님을 도울 수 있고, 딸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으며, 적은 돈을 저축할 수 있어요. 또한 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던 교회에 십일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도움이 이웃과 남편에게 간증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역 목사님 아모스는 증언하십니다. "바아니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어떻게 조성 하시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가 바아니를 도왔을 때 저희는 그녀에게서 어떠한 보답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바아니는 교회에 십일조를 드리며 그녀 자신의 작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원합니다. 저는 바아니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신 여러분과 함께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

불행히도 바아니 남편으로부터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바아니가 생계를 꾸리고 교회에 계속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출근하는 도중에 그녀를 공격했고 머리에 상처와 몸에 멍을 남겼습니다. 바아니는 상처를 치료하며 몇 주 동안 집에 있었고, 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알고, 이 박해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하러 가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멀리서 지켜보곤 했지만, 마을의 어른들이 다른 이웃들과 함께, 그에게 박해와 부적절한 행동을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마주치지 않았지만, 가끔 딸들은 교회에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찬양과 간증

팬데믹 2차 확산 기간에도, 바아니는 지침에 따라 교대로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아니는 시편 27장 6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아니는 말합니다 :

"하나님이 저의 머리를 높이 들어 주셨고 친절한 도움을 통해 저를 고통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고 싶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은 제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어떻게 저를 격려하고 저의 인생에서 더 많은 축복의 문을 열었는지 간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제가 겪은 아픔과 고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저는 온갖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제 위에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바아니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그녀를 위해 축복과 기도의 통로가 되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바아니의 딸들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주일 예배 찬양을 합니다.

바아니와 함께, 저희 방문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신비스러운 방식들에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름의 열기는 저희 마음에 즐거운 소식을 가져다 주었고, 친절이 어떻게 바아니 같은 신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하게 됐으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WWL2021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우리의 기도는 갈 수 있어요 Our prayers can go where we cannot..."
– Brother Andrew

26
튀니지

인구
1,190만 명 / 기독교인 23,100 명
지도자
히셈 메시시 총리
박해지수 (3점 증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가장 박해에 노출 되어 있다–가족들과 주위의 사회로부터 빈번히.

이들이 직면하는 적대감과 압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나누는 것이 위험하다. 남자들은 위협과 공동체에서의 배척, 구타와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는다. 여성들은 성적 학대, 가정폭력, 가족으로부터의 추방, 강제결혼 등의 위험에 처한다.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남쪽 국경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이들은 크리스천이면 외국인이거나 튀니지인이거나 할 것 없이 모두 공격대상으로 삼는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북아프리카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신앙서적 자료 배포, 옹호 사역을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고립된 성도들이 주안에서 교제할 다른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 튀니지 전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새로운 담대함과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튀니지 여성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27
모로코

인구
3,700만 명 / 기독교인 31,500 명
지도자
모하메드 6세 국왕
박해지수 (1점 증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가족들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한다. 가족들은 이들이 새로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새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세례를 받거나, 같은 크리스천과 결혼하거나, 교회 공동묘지에 매장되거나 하는 등의 활동이 허락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속권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불법이다.–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나누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이다. 크리스천 변호사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폭력공격의 표적이 되어왔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북아프리카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신앙서적 자료 배포, 사회경제적 개발 지원과 옹호사역을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모로코 전국에 흩어져있는 모로코 성도들 간에 연합이 있도록.
- 가족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얻도록, 안전하도록.
-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크리스천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도록.

28
말리

인구
2,030만 명 / 기독교인 467,000 명
지도자
바 은다우 임시대통령
박해지수 (1점 증가)

2020년 여름에 일어난 쿠데타로 말리의 정치적 불안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극단주의자들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의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을 장악해왔다. 이러한 극단주의 단체들은 크리스천들을 표적으로 삼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종교적 자유의 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무슬림 출신 성도들은 특히 가족들로부터의 박해에 취약하다. 말리에서 활동중인 선교사들도 끊임없는 납치의 위험 아래 있다; 몇몇 선교사들이 지하디스트에 의해 납치되었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말리의 교회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대비훈련, 경제적 자립 프로젝트들, 새신자 제자훈련 등을 진행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새 정부가 종교적 자유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 하나님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주시도록.
- 끊임없는 위협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29
카타르

인구
280만 명 / 기독교인 367,000 명
지도자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 타니 국왕
박해지수 (1점 증가)

무슬림에서 개종한 카타르 크리스천들은 중대한 박해에 직면한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카타르에서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이주 근로자들 이고 이들은 보통 예배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카타르인 무슬림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교회들도 자주 모니터를 당하고, 교회는 특정지역들로 제한된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개종을 한 사람은 모두 차별, 괴롭힘, 경찰의 감시를 당할 수 있다. 더우기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다.

오픈도어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원합니다.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성경자료를 배포하며 성도들과 목회자 훈련을 진행 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카타르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 고용주에게 학대와 차별을 당하는 크리스천 이주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 비밀신자들이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예배의 자유를 허가받도록.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TOWARDS the DREAM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교자의 아들 셀레

올해 6월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지리아 13세 소년 셀레(Sele)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셀레가 2살이던 2011년, 셀레의 아버지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무슬림 폭도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셀레의 어머니는 농사를 지어 겨우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갈 뿐 자녀들을 교육시킬 여력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세실리아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셀레가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합니다. 셀레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박해 피해 가정을 돌보는 오픈도어의 '희망의 선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의선물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2021 오픈도어
온라인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 2021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선교학교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실제적인 선교 참여의 계기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1. 강의 일정
- 기간: 10월 12일-11월 30일 (8주 과정)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2. 주제: 복음의 현장에서 북한을 품다

3. 강의 목록

날짜	주제	강사
1강 (10월 12일)	북한 선교 개론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2강 (10월 19일)	북한의 사상과 체계에 대한 성경적 접근	정종기 (고신통일선교원 원장, 아세아연합신대 교수)
3강 (10월 26일)	국내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선교	강디모데 (엔케이피플 선교회 대표)
4강 (11월 2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대표)
5강 (11월 9일)	탈북자 사역과 국제 NGO의 북한선교	팀 피터스 Tim Peters (Helping Hands North Korea 대표)
6강 (11월 16일)	해외 북한 여성 사역	오픈도어 사역자
7강 (11월 23일)	해외 북한선교현장	
8강 (11월 30일)	북한 지하교회와 내지선교	

(강사 및 일정 변경 가능)

4. 접수
- 9월 1일 - 10월 6일까지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등록비: 4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50% 할인)

5. 문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